

### 특별기고

## 포천의 역대 현감, 군수, 시장 새시장 「서장원」 시대의 개막을 축하하며!

고려 이전의 포천은 양주, 철원의 속현(屬縣)이었던 관계로 생각되고, 조선시대의 중종9년(1514년) 이후의 기록만을 참고하기로 했다. 이지함은 중종12~선조11년까지 재임한 최고의 명현감이었다.

토정비결이란 예언서를 써서 국민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토정(土亭)은 실제로 한강가에서 흙으로 정자를 짓고 빈민구제책을 건의하여 살았다. 재직중 임진강의 범람을 예견하고 포천 땅의 피해를 대비했던 명인이었고 서해의 섬을 포천땅에 예측시켜 가난한 현민을 구하고자 건의했으나 조정에서 용납되지 않자 사직했다. 「농아집(鰲亞集)」을 귀향하여 저술했으며 임금에게서 문강공(文康公)의 시호를 받은 위대한 인물이다. 송선(宋瑄)(중종39~인조7)은 토호들의 전정(田政)을 단속하다가 토호들의 책동으로 3개월만에 파직되었다. 그러나 백성들은 유애비(遺愛碑)를 건립, 현감의 정을 잊지 않았다. 홍사룡(洪瑞龍)(선조38년) 세도가와 소시민을 구분하여 부역을 균등하게 부과한 현감이다.

그래서 광해7년 다시 포천 현감으로 부임 선정을 편다. 이성구(李聖求)는 선조17년~인조22년까지 살았는데 광해8년 부임, 백사 「이항복」이 죽자 운구하여 장례, 서원에 배향하고 산성을 중수한 인물로 영의정까지 승차하고 정숙공(貞肅公)의 시호를 하사받고 현민은 청덕비를 세웠다. 이현(인조3년)은 재임시, 선정으로 선정비를 현민이 세웠다. 유봉서(柳鳳瑞:숙종22~)는 선



김창중 본지 지문위원외교로 1936년 경기도 포천 출생

〈필자 주〉 포천의 새시장 서장원님의 당선과 취임을 축하하며 이에 즈음하여, 포천의 역대 현감, 군수, 시장의 공과를 더듬어 보고 새로운 서 시장 시대의 참고 자료로 삼았으면 하는 바이다.

정으로 청덕비 건립, 정유승(鄭維升:숙종30년)은 화가로 포도화 인물화에 능하여 「군원유회도」가 간송 미술관에 있다.

김상열(金相烈:영조11~)은 선치로 칭송이 자자하여 현민이 포성신칭을 했다. 이한철(李漢喆:고종11년~)은 고종의 어진 김정희 영정(보물547)을 그린 이름난 화가였다. 홍재(洪在義:고종19)는 임오군관때 고종을 구한 공로로 무감(武監)에서 포천 현감으로 제수받아 선정을 했는데 폐지상(弊止狀:재난피해 보고서)을 올리며 건의 대동소미(大同小米:세금으로 내는 곡식) 175석 3두와 세금1230량을 탕감할 줄 것을 제청 승인을 받았으며 충청수군 절도사를 승차했는데 현민이 선정비를 세웠다.

다음은 영광현의 현령(지금의 영광면 북쪽의 포천지역)의 행적을 보자. 허임(許任:광해7~) 현령은 「동의문견방(東嶺門見方)」 등의 의서를 저술한 명의로 부평부사로 승차했으며 이현(인조3~)은 좌찬성까지 승차한 충정공(忠貞公)으로 선정비가 있다.

권식(인조20~) 현령은 부임하면서 만든 팔장제전(八廠製進:「경천(敬天)」, 「홍민(恤民)」, 「정심(正心)」, 「불런(勿亂)」, 「용인(用人)」,

「수신(修身)」, 「성의(誠意)」, 「신중(慎終)」을 만들었는데 8가지를 가르쳐 「자길 나아갈바」 즉, 「시정」방첩인 것이다.

이재원(고종5~)은 선정비를 현민이 세웠다. 홍태운 현령은 고종시 임호군관을 맞아 명성왕후를 보호(홍삼공의 오라비)한 공로로 표창을 받고 현령이 되었다. 「팔계장(표창훈장)」을 받았을 일제시대에는 고등문관시험(지금의 행정고시) 합격 수습(6개월) 마친 초임 군수가 많았고 「계시판」을 「갑시판」이라고 읽으라고 강요한 군수도 있었을 정도로 군수의 질이 낮았으며 벽지군 두와 세급1230량을 탕감할 줄 것을 제청 승인을 받았으며 충청수군 절도사를 승차했는데 현민이 선정비를 세웠다.

역대 포천 현감, 영광현령은 모두 선정을 베풀 훌륭한 원님들만 있었던 게 아니다. 보고서를 올리지 않아 파직 탄핵(김진원:광해12년~)을 받은 현감도 있으며 재임시 민전(民田)을 빼앗아 원방(박자흥, 광해14~)을 들은 현감도 있고 어사에게 고발당하여 파면된(오무성, 숙종29~)현감도 있다. 한량(閔良)으로 무식하여 현민

들의 웃음거리가 된 이현 현감(영조8년~)도 있었는가 하면 암행어사에게 적발하여 파직 「오태석, 허음 현감, 권유만, 원유오」 된 현감도 있다. 총독단 관리 소홀로 파직(박용민 현감) 된 자도 있었는가 하면 심지어는 아문주사 출신의 현감 정대영(丁大英)은 포천의 공형(公兄)들이 많은 백성들을 거느리고 민관을 일으켜 축석역 고개 너머로 가마에 태워져 쫓겨난 일이 있기도 했다.

이제 내고향 포천도 포천의 명문가로 알려진 달성(대구) 서씨 문중의 「악봉」선생의 후손이며 초대 제헌 국회의원 서정희님의 후손인 서장원님이 포천시장으로 3차 출마 각고 끝에 당선 취임했다. 포천출신이라는 장점도 있고 누구보다도 군정(郡政)과 시정(市情)을 잘 알고 경험했던 기초의원 그리고 의정출신이고 보니 뭐 모르는 게 없지 않았는가?

향토대학(중문의대, 대진대, 경북대)중 2개 대학에서 수학한 학사가 아닌가? 그뿐만인가? 농민, 도시민 등 포천의 민정(民政)을 잘 살피는 대표성이 증명된 셈이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과거 역대 국회의원 등, 선거 후 당선되면 지역 원로들을 도의시키는 인사에 절이 아닌 서장원 심임시장은 당선되자마자 지역 원로들에게 겸손한 인사 예의를 갖추는 일을 먼저 했다는 것이다.(명문가, 농민 지도자 담지 않은가?) 앞으로 역시, 현감, 현령, 군수, 시장들의 행적을 거울삼아 시민이 세우는 선정비(善政碑)를 세움 받는 시장이 되기 바라면서 새시장의 취임 축하와 박수를 보내는 바이다.

### 독자기고

##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으며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시민들이 잠시나마 순국선열을 추모하며 나라사랑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우리가 사는 포천지역에 대해 소개할 때 선비의 고장이요 충효의 고장이라고 한다. 나의 짧은 식견이나 내가 알고 있는 우리 고장 출신 명현 석학들을 일부 소개해 본다면 「태산이 높다하되 하늘아래 피오라다로 시작되는 시조로 유명한 봉래 양사언 선생, 사육신중에 한 분인 충목 유응부 장군, 오성사 한음으로 널리 알려진 이항복 선생, 구한말 한학자이자 의병장 이신 면암 최익현 선생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한 인물을 배출한 고장이기에 선비의 고장이요 충효의 고장이라 칭하는데 후호도

부끄러움이 없을 뿐 아니라 포천 인물로서 자긍심을 갖기에 충분 하리라 생각한다.

우리가 숭모하고 분반을만 한 인물들은 관내 청성사, 충목단, 용연서원, 채산사, 화산서원, 옥병서원, 청해사, 길명사, 운당생, 사육신중에 한 분인 충목 유응부 장군, 오성사 한음으로 널리 알려진 이항복 선생, 구한말 한학자이자 의병장 이신 면암 최익현 선생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한 인물을 배출한 고장이기에 선비의 고장이요 충효의 고장이라 칭하는데 후호도

또한 우리지역은 6.25동란 중 수많은 사람들이 조국을 위해 피 흘려 싸운 격전지 그 흔적이 아직도 무수히 남아있다.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의 높은 뜻을 기리기 위한 충훈탑이 청성

공원내에, 영복면 문암리에 타 일랜드 참전비, 가산면 우금리에 육사생도 6.25참전기념비, 이동면 노곡리에 독수리유격대 전적 기념비, 신북면 가지리 43번 국도변에 전투진지, 이동면 도평리 수복기념탑 등 전적 기념물이 도처에 산재되어 있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그저 막연히 조국에 대한 사랑과 애환심에 동참을 호소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역사가 숨쉬고 있는 관내 유적지 및 전적 기념 장소들을 자녀들과 함께 탐방하면서 개인의 안위보다는 나라와 민족



안유진 포천시 공무원담당관

을 위해 헌신하신 호국영령에 대한 고귀하고도 값진 희생에 대하여 추모의 마음과 존경심을 가슴속 깊이 간직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듯 싶다.

조국을 위하여 의로운 삶을 살다가 가신 분들의 혼을 다시 한번 기리며 값진 희생의 대가로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보훈가족들에게도 온정을 베풀 수 있는 아량을 지닌 포천시민이 되었으면 한다.

### 특개업

##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 한우암소 생고기전문점 한우마을

한우마을(대표 한광열)이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소흘읍사무소 정문)에 문을 열고 한우암소만을 업선하여 판매하고 있다. 주요메뉴는 다음과 같다. ▶한우암소모듬 600g 28,000원 ▶한우 등심 모듬 600g 34,000원 ▶한우암소옛날불고기 600g 24,000원, 中300g 14,000원 ▶한우 암소 육사시미 大600g 35,000원, 中300g 20,000원 ▶한우 암소 육회 大600g 25,000원, 中300g 15,000원 ▶한우 암소 갈비탕 7,000원 ▶냉면(기계식) 5,000원 (☎ 031-544-3392, 011-351-1096)



### 수랏간에서 홈친 밥상

수랏간에서 홈친 밥상(대표 조승형)이 포천시 자작동 2번지(6군단 옆)에 문을 열었다. 토장(土醬)조치(찌개)로 만든 궁중수랏간 음식을 재현하여 만들어 맛이 일품이다. 주요 메뉴는 ▶홈친밥상 8,000원 ▶궁중백반 6,000원 ▶수랏간 김치전골 6,000원 ▶궁중소면 5,000원 등이다. (☎ 031-534-1272, 016-346-9899)



### 우리쌈마루

우리쌈마루(대표 나금순)가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493번지 문을 열었다. 주요 메뉴는 ▶쌈밥 6,000원 ▶삼겹살 7,000원 ▶두부부침 3,000원 등이다. (☎ 031-541-3296)



### 춘천옥 동굴 찜질기 무료체험장

춘천옥 관광체험장(대표 서효선)과 포천인삼영농조합(홍삼 직영매장이 포천시 선단동 81-8 건화휴게소 맞은 편)에 문을 열었다. 취급품목은 육제품(목걸이, 팔찌, 반지) 육혼합 제품과 홍삼순애, 봉밀홍삼정파, 홍삼분말골드, 홍삼으로 만든 여러 가지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부도님 호도선물, 가족간 건강선물 결혼·회갑연 및 각종 행사용 선물로 안심마춤이다. (☎ 031-534-3312, 011-9999-8267)



### 매직터치 포천송우점 오픈

매직터치 포천 송우점(대표 전제희)이 6월14일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93-8번지에 문을 열고 영업을 시작했다. 매직터치 포천 송우점은 자동차 의장관리 및 외형복원 전문브랜드로 보험수리 및 수입차량 전문이다. (☎ 031-541-2516, 010-2046-2295, www.mtdcs.co.kr)



### 윤영희 한복전문점

윤영희 한복전문점(대표 윤영희)이 포천시 자작동 6-5번지에 문을 열었다. 한복 맞춤 및 대여 전문점이다. (☎ 031-535-3122, 017-397-2119)



### 이안컴퓨터 전문점

이안컴퓨터 전문점(대표 심태진)이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문을 열었다. 이안컴퓨터는 ▶CCTV 공사 ▶네트워크 구축 ▶이안컴퓨터 조립 ▶LCD 수리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 031-544-7779, 011-9756-9852)



### 타올갤러리

타올갤러리(대표 김영숙)가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문을 열고 결혼 철수 야외 등 기념타월을 주문 판매하고 있다. (☎ 031-542-8531, 010-8557-7883)



### 평양면옥

평양면옥(대표 안재희)이 포천시 자작동(6군단 옆)에 문을 열고 3대째 이어온 메밀냉면으로 장인의 맛을 내고 있다. (☎ 031-536-0759)



6월 10% 새단장

# 공간과 생활을 아름답게 하는 한미건축자재 백화점

세계가 사랑하는 욕실- 아메리칸 스탠다드 (American Standard)  
스페인 기술로 만든 고품격 강화마루 - Primer  
다양한 무늬 소폭 강화마루 - 다빈치

◆ 취급품목 ◆

- 인테리어 필름
- 시트지
- 도기 타일
- 로얄스톤
- 각종 건축자재

한미건축자재 백화점  
TEL. 031-871-2002

인테리어필름·시트지·도기타일·로얄스톤·각종건축자재

대복인테리어 하우스 (한미상재(주))

본 사 : TEL : 031)542-8818  
장암영업소 : TEL : 031)871-2002